



중국 "구글컴퓨터보다 100억배 빠른 양자컴퓨터 만 들었다"

기사입력 2020-12-04 13:31



중국 연구진이 개발한 양자컴퓨터 - 신화통신 갈무리

(서울=뉴스1) 박혜연 기자 = 중국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보다 100조배, 구글의 슈퍼컴보다는 100억배 더 빠르게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.

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연구진은 최근 미국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논문에서 표준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인 가우스보손 샘플링을 통해 최대 76개 광자를 감지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 시제품 '지우장'을 만들었다고 밝혔다.

이는 기존 컴퓨터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빠른 속도다. 구글은 지난해 슈퍼컴퓨터가 1만년 걸릴 연산을 200초 만에 처리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. 중국 연구진은 구글이 만든 컴퓨터보다 100억배 더 빨리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.

현재 양자 컴퓨터 분야는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컴퓨터 처리 속도와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대형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고 물리학과 화학 등 여러 연구 분야에 지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열쇠로 평가받고 있다.

특히 구글이나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(MS)이 참여하는 미중 기술 경쟁의 또 다른 전선이 되고 있

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.

중국 정부는 양자 컴퓨터 개발을 위해 100억달러규모의 국립 양자정보과학연구소를 건설하고 있다.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올해 초 인공지능(AI)과 양자정보 연구에 10억달러 자금을 지원했다.

hypark@news1.kr

- ▶ 네이버 메인에서 [뉴스1] 구독하기!
- ▶ 뉴스1 바로가기 ▶ 코로나19 뉴스

© 뉴스1코리아(news1.kr)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

이 기사 주소 <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etc&oid=421&aid=0005031163>
